

※ 다음을 참고하여 25번과 2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5.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 (가)의 '현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② 학생 2: (나)의 '울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 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③ 학생 3: (가)의 '늪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홍'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낙대'를 들고 흠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④ 학생 4: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울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⑤ 학생 5: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6.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चु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뻗뻗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으므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략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만약 의무 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B]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素因)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중략)

나는 퇴원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 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강의 시간에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주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이였다.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져 버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향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다.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 안이한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 앞에 전개된 것이다.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된 견고한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짧은 인턴을 삼입해 보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간호원의 눈을 피해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꿔 버렸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다. 가을밤, 환자

복만을 입고 층계를 수십 번 오르내린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병실 앞에 걸려 있는 이름은 **해산일을 앞둔** 여인의 문패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인 것이다. 자, 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향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턴이 ㉠ **새로운 방향의 길로** 떠나 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다음 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 여덟 시경. 나는 칫솔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달라진 낚새가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쥘겔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이 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서 끓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기를 쓰며 가까스로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틈엔가 **고등 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었다.

오전 아홉 시. 의사들은 동물원에서 갓 수입한 열대 동물처럼 때를 지어 회진을 시작했다. 간밤에 수면을 잘 취했는지 그들은 더욱 정경해 보였다.

“오늘 퇴원이시죠?”

우두머리 의사가 가운데 손을 찌르며 여전히 사탕이라도 꺼내 줄 듯한 몸짓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퇴원하실 때 간호원에게 약을 받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윽고 젊은 인턴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뭐 있으신 물건은 없으시죠?”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아, 예. 다행이군요. 어젯밤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헛하하.”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중으로는 판명이 되겠지요. 저,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들이 제각기 무어라고 주의말을 주면서 사라져 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약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 최인호, 「견습 환자」 —

2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전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 ② ‘나’는 ‘그날 밤’에 몸이 지치도록 밤새 병동을 오가며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였다.
-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 ④ 우두머리 의사는 ‘오전 아홉 시’경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을 제안하였다.
-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피해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다.

29.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쥐가 반복적으로 ㉠에서 방황하는 것은 충분한 포식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 ② 젊은 인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③ 젊은 인턴이 미로에 빠졌다는 것은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쥐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부재한 미로이지만, 젊은 인턴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뚜렷한 미로이다.
- ⑤ 쥐는 익숙한 먹이를 위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을, 젊은 인턴은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장차 도달해야 할 ㉡을 선택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병원’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인물들은 기계적 일상에 매몰되어 감정이 제거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보여 주며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